

일본의 섬유 산업 - 격심한 국제 경쟁의

방어책으로 특허 중요시

일본의 섬유 산업은 압도적으로 양(量)을 자랑하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독자성이 있으며, 차별화된 고부가 가치품을 만들어 내는 길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방어책의 하나로 특허권이 중요하게 되고 있다.

일본에서 특허권을 중요시하는 경향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때까지는 특허권을 침범한 쪽이 재판에서 패소(敗訴)하여도 특허 사용료만 지불하면 끝났으므로, 결과적으로 특허권을 침범하여 모방한 제품을 팔아먹은 쪽이 득이 된다고 하는 시대가 오래 계속되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일본 기업이 특허 침해로 고소되어 패배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자, 일본도 특허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법이 개정되어 일본에서도 특허를 침해하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섬유 업계에서는 어떤 기업이 새로운 특허 상품을 발표하면, 바로 직후부터 같은 상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아직도 있다. 확실히 옆집 잔디 풀은 더 파랗게 보인다는 말처럼 탐내어 모방하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상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중국도 해마다 기술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어 중국품도 새로운 특허품을 모방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최근에 개최된 중국의 “인터텍스타

일 상하이”를 보면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본의 산지 기업들이 위기감을 느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동업 타사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도 라이벌로 되어가고 있다.

국내외에 존재하는 라이벌과의 격심한 경쟁에서 이겨내는 방법으로 특허권이 중요하게 되고 있다. 이는 일본 내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이 기대하고 있는 수출이나 현지 생산에서도 중요하다. 쉽게 만들어내는 모방품에게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도 특허권을 중요시하여야 하는데, 그렇다고 손쉬운 특허를 이것저것 많이 내놓으면 특허품으로서의 인정도 받기 어렵고 그 중의 하나가 히트치려니 하는 생각은 통하지 않으므로, 특허다운 특허, 독자성이나 참신성, 깊은 기술력으로 이루어진 것일수록 특허의 가치가 오래 인정되고 또한 모방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업계에서 특허를 중요시하게 되자 특허청이나 재판소도 판결이 엄격하게 되었으며, 특허 등록을 무효로 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특허 취득률도 떨어지고 있다.

국제 경쟁이 엄격하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권은 큰 무기가 되며, 그 질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